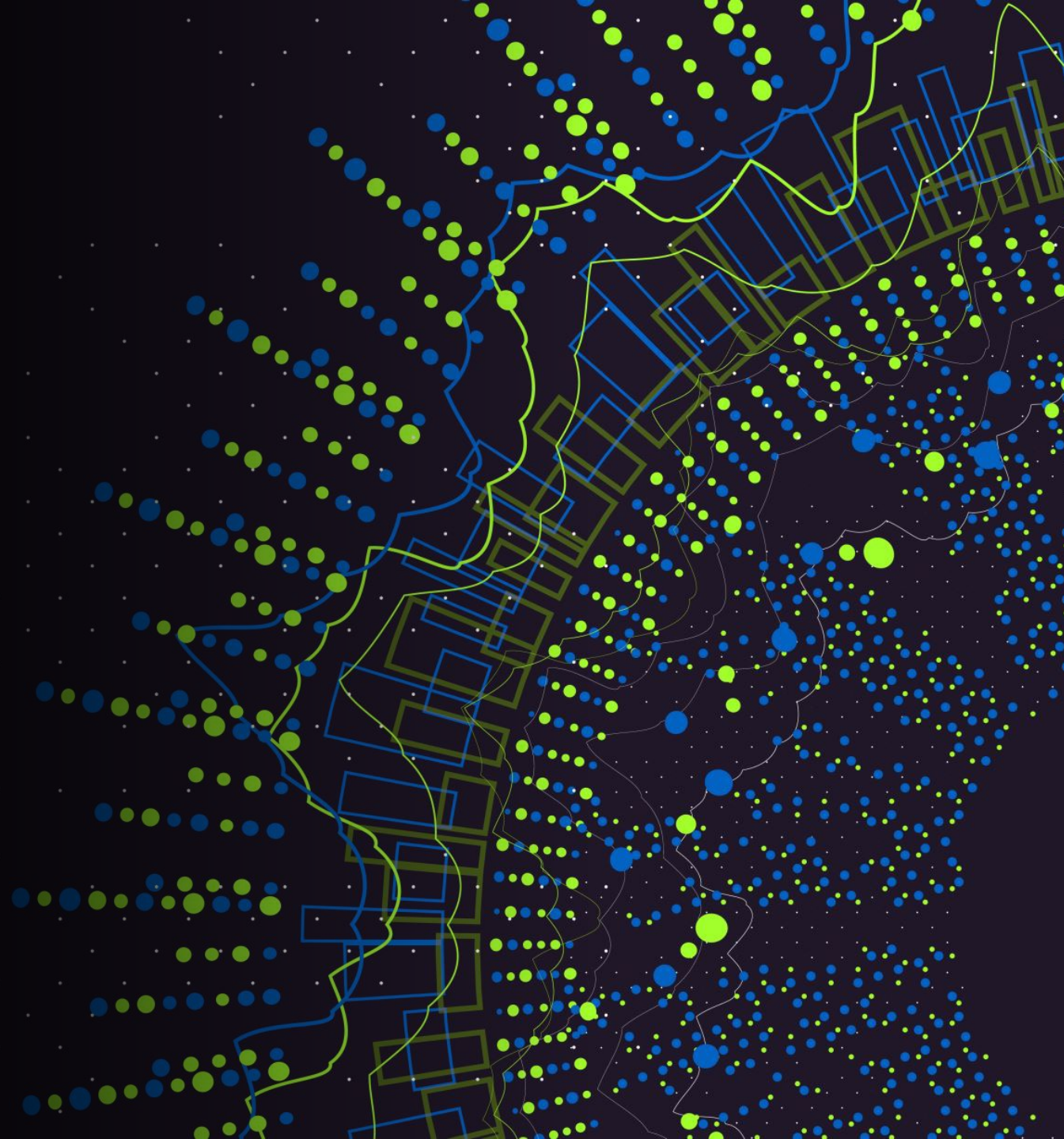



외국계 IT 컨설턴트에서 스타트업 코파운더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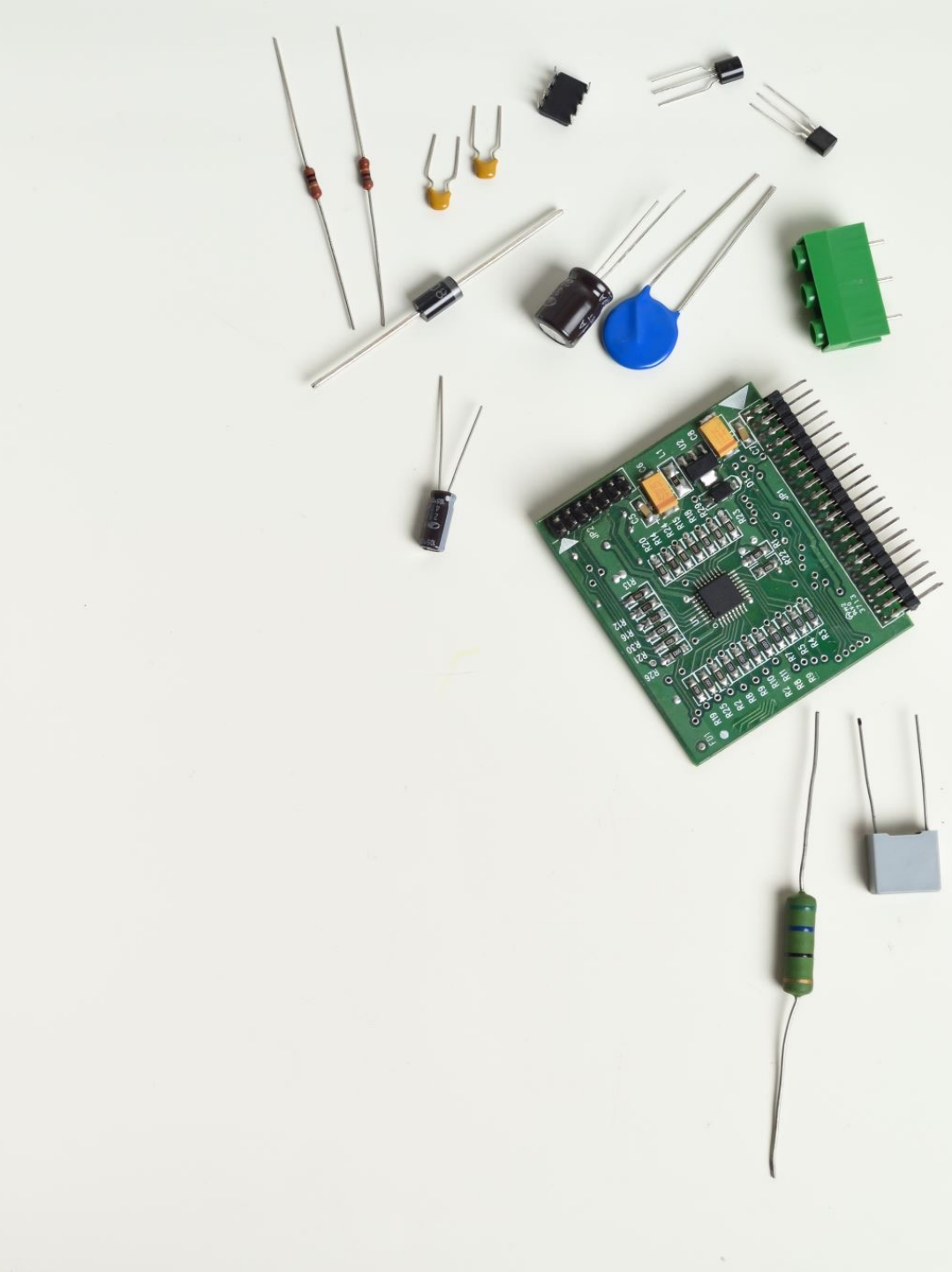
2023.11.15.
박성규





제가 할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AWS
#Fliption #Software Engineer
#Product Owner #MLOps



강사 소개

- 컴퓨터공학 전공(- 2020.02)
- 매스프레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2020.03 – 2020.05)
- Amazon Web Services, IT 기술 강사 및 컨설턴트(2020.08 – 2023.02)
- 예비 창업과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및 팀 빌딩(2023.05 – 2023.07)
- 플립션 코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코파운더(2023.07 – 현재)

소제목

IT 컨설턴트에서
개발자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개발자 역량

IT 컨설턴트에서 개발자로

- 외국계 회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현실
- 경험의 목마름
- 퇴사와 개발자로 돌아온 이유



외국계 회사의 특징

장점

- 워라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 단, 성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외국계 기업의 기술직은 고객과 가까운 역할이 많은 편이다. 여러 고객의 문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의 우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볼 수 있다.

단점

- 나를 이끌어주는 사수가 없다.
- 지속적으로 나를 어필해야 한다.

경험의 목마름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함.
그러나 지식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음.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답만 외운
느낌. 해답지에 나와있는 방법을 외워서 말하는 앵무새.

나만의 풀이법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음'

퇴사와 개발자로 돌아온 이유

연말에 매니저와 1 on 1을 하는 과정에서
'닉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는
자조섞인 물음에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정. 나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것이라는 판단.

(회사에서) 내가 몰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Python 개발자로 프리랜서를 뛰면서 개발
공부를 함. 개발 공부의 경우, 주로
임베디드 및 리눅스 쪽을 공부했음. 안
해본 공부를 하고 싶었음.

새벽 3시에 라즈베리파이에서 ftrace로
커널 디버깅하다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함.

달리기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후 네트워킹
행사 돌아다니며 팀 빌딩 함.

어느 날 이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
회사의 대표와 커피챗 후 합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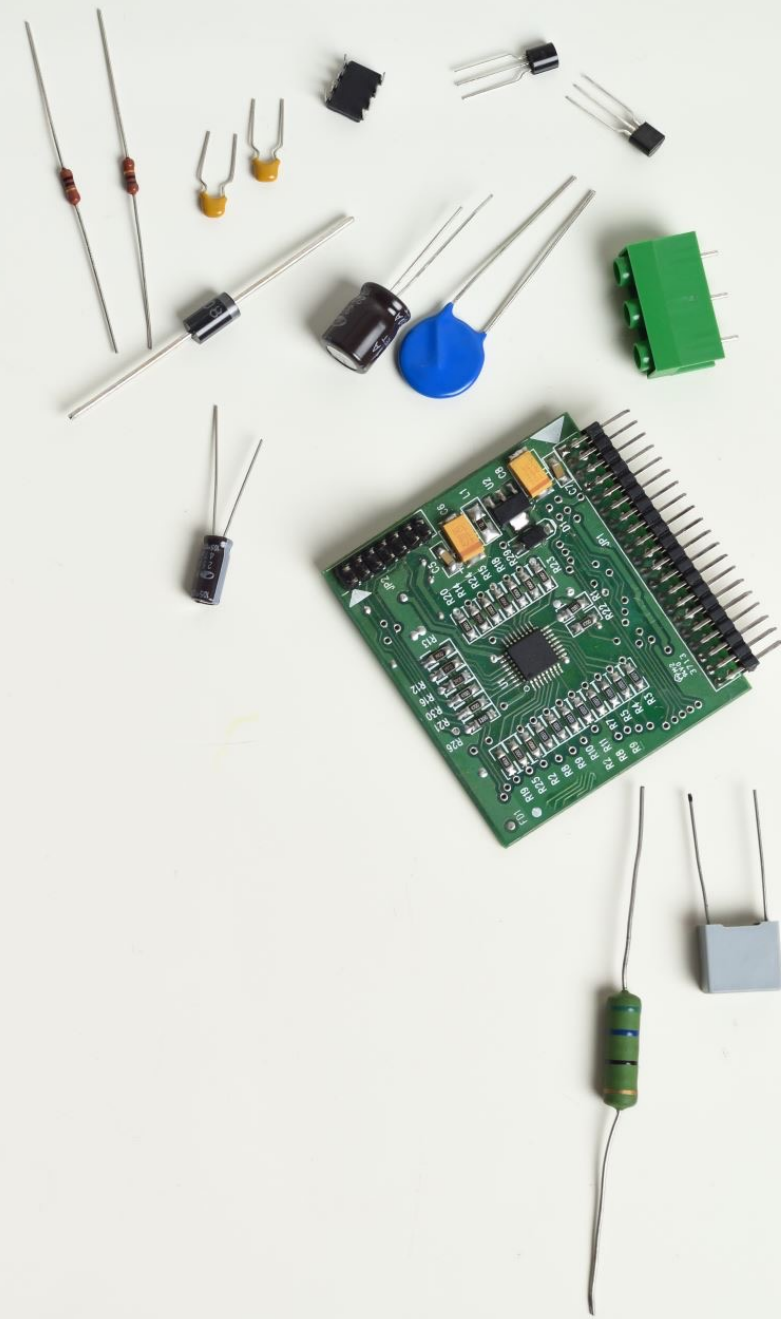
플립션코리아(Fliption, Inc)

-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얼굴을 생성하고 합성하는 기술로 패션 마케팅 시장을 혁신하는 기업을 꿈꾸는 회사
- 제품과 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서 모델 소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 기획
- 미국의 패션, 마케팅 시장을 타겟팅하는 B2B SaaS 개발 중



백엔드 개발자로 들어왔지만..

- 회사의 여러 사업에 투입되며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이해.
- 지금은 개발 팀장이지만 스스로는 개발자라기 보다는 회사를 운영하는 한 명의 일원으로 인지.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제품 기획 등 개발자의 업무 범위를 초월하는 일을 하기 시작.
- 회사 내에서 PO와 엔지니어 둘 중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스타트업에 필요한 개발자 역량

내부 팀원과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 이해

- UI/UX 디자이너 – Figma
- AI 연구원 – MLOps(Cortex, BentoML, etc.)
- PO – 칸반과 스크럼
- (내가 백엔드 개발자라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
Swagger

포지션에 따른 개인 역량

- Nest.js, Next.js, TypeScript, etc.

추가적으로, 체력, 영어
그리고 언제나 노트북을 열
수 있는 열린 마음.

- 달리기는 필수(느리게 뛰는
심장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준다)
- 손짓, 발짓과 더불어 영어도
한 스푼

3개월 일한 후, 회사로부터의 제안

“지금 우리 회사의 단계에서 닉은 저희에게 매우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하시죠.” – 플립션 대표

“공동창업자가 되려면 영감과 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 일론 머스크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정도 받아들이기로 함. 그 이유는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고 고객을 만난 후 제품에 어느정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

인생을 놓고 베팅을 하면 일이 재밌다. 제품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마무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내가 하고싶은 일을 명확히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돈도 잘(많이?) 버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번에 잘 맞기란 정말 쉽지 않다. 계속 찾던지 아니면 맞춰서 살든지 해야 한다.)

올해 일년을 통해 얻은 사실은 '파도에 몸을 맡기면 어디엔가는 서게 된다.' 잠시 멈췄다고 생각될 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얻는 게 있더라.

주변에 나의 사실을 알리면 누구라도 도움을 주더라.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링크드인이나
개인 메일로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prodinic13@gmail.com

감사합니다.



Seonggyu Park
Co-founder | @Fliption | Builder

